

# 체육인 생애사 쓰기의 어려움

춘천여자고등학교 김재룡

이름이 망초여서 / 기억도 없이 살아도 / 덜 아플 것 같은 이름이어서 / 다행이다 / 단  
한 번의 눈길만으로도 / 온 세상 가득 차 / 속절없이 기다리다 질 수 있는 / 꽃잎일 것 같  
아서 / 정말 다행이다 / 와도 오지 않아도 좋을 기다림에서 / 놓여나고 풀려나도 / 울지  
않을 것 같아서 / 덜 서러울 것 같아서 / 고맙다 / 아무 때, 아무데서나 / 찢끔거리도 괜찮  
을 같아서 (「개망초에게」 시로 여는 세상, 2009)

## 서성거리기

올해, 몇 년 동안 끌어안고 씨름하던 끝에 결과물을 내놓으며 박사학위를 받게 되었다. 체육선생인 주제에 무슨 박사나고 하겠지만, 내가 해 온 공부는 철학과 역사, 인류학적 상상력에 문학적 글쓰기가 어우러져야만 접근해 볼 요량이 생길만한, 소위 질적 연구로서 한 인간의 생애사를 쓰는 것이었다. 생애사 연구를 처음 시작할 무렵부터 많은 문체와 맞닥뜨릴 수밖에 없었다. 연구자인 나뿐만이 아니라 지도교수에게도 은사인 ‘체육인 한상준<sup>1)</sup>의 생애사’를 쓴다는 것은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를 쓰겠다는 것이었는지 모른다. 나에게 ‘은사’의 생애를 정리한다는 것은 일종의 보은의 행위에 해당되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학위에 보은까지 하고, 무언가 몽근하게 남아있는 마음의 부담까지 덜어낼 수 있으니, 마당 쓸고 도랑 치고 가재 잡는 격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막상 논문을 쓰기 시작하면서 부닥친 가장 큰 문제는 이 양반의 생애 자체였다. 이 양반의 생애는 어떻게 보면 너무 평탄하고 주어진 현실에 안주하고 있었던 것이다. 감동이 없다면, 그것이 비록 학위 논문이라고 해도 스스로 무가치하게 여기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주인공은 1936년생으로 비교적 풍족한 집안에서 태어났으나, 부친의 외도, 해방과 6.25전쟁을 겪으면서 어린 시절을 어렵게 보낸다. 농구와 배구 등 운동선수를 하며 중고등학교를 마친 후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를 졸업한다. 거기까지였다. 주인공은 서울대학교 출신이라는 것 하나만으로도 국립대학교의 교수가 될 수 있었으며 학생처장과 사범대학장을 역임하고 정년퇴임한 팔자 좋은 노인이었다고 판단하였던 것이다!

여기에 더해 한국사회의 체육과 스포츠가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거부감과 반발심

1) 강원대학교 스포츠과학부 명예교수. 이 글에서는 이 양반, 주인공, 선생님 등으로 지칭된다.

이 더해졌다. 체육선생으로 밥을 먹는 주제에 체육과 스포츠 전반이 짜증스러웠다고나 할까. 국가와 자본에 포획되어 체육과 스포츠의 제도화를 앞서서 이끌어 온 이들에 대하여, 똑같은 방식으로 재생산에 앞장서고 있는 대략 한심한 체육교사의 배신이 시작된 것이다. 생애사라는 것은 한 인간의 생애가 파란만장하거나, 뚜렷한 발자취를 남겼거나, 철저히 무시당하고 소외받고 버려진 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면 무가치한 것이라 여기고 있었던 것이다.<sup>2)</sup>

어쨌든 허점투성일 망정 결과물을 만들어내기는 하였다. 이 글은 이렇게 학위 논문을 쓰면서 맞닥뜨렸던 일들에 대하여 대략 두서도 없고 짜임도 없이 접근해 보는 것이다.<sup>3)</sup>

### 자기 이야기 (self narrative)

나는 1985년 대학을 졸업하고 곧바로 서울의 남자공립인문계 면목고등학교에 발령을 받았다. 요즈음 체육교사를 지망하는 이들에게는 꿈같은 이야기이지만, 당시에 사범대학 졸업생들은 교육부의 교사수급 방침에 따른 시·도 배정(配定)에 따라, 무시험검정으로 2급 정교사 자격증을 받고 중등교육 학교현장에 설 수 있었다. 첫 학교에서 5년째인 1989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결성되었다. 전교조 분회 창립에 앞장선 나는 학교에서 해직 1순위였으나 ‘탈퇴교사’로 살아남는다. 학교에서는 4명의 동료교사가 해직된다. 이듬해에 지금은 금천고등학교로 교명이 바뀐 공학공립인문계 시흥고등학교로 전출하고, 서울대학교에서 1급 정교사 자격연수를 받았다.

시흥고등학교로 전출한 1990년부터 현재까지 ‘전국체육교사모임’(이하 ‘전체모’, 김재룡, 2005. 박정준, 2006)<sup>4)</sup>에 관여하고 있다. ‘전체모’는 1990년 12월 8일 연세대학교 장기원기념관에서 『체육교육』 지誌를 창간하고, <체육교육 문제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시작되었다. 나는 창간사(創刊辭)인 「우리들의 이야기」를 썼다.<sup>ii</sup> ‘전체모’는 2010년 2월 현재 통권 71호의 『체육교육』 지를 발간하였다. 전교조 출범과 함께 궤를 같이 하는, 체육교사들의 순수하고 자주적인 조직으로 성장하고 있는 ‘전체모’ 초대 회장으로 1997년까지 이끌었다.

2007년부터는 계간지인 『체육교육』 지에 고정칼럼을 연재하기 시작했다. ‘최후의 식민지에서 보내는 편지’로 첫 연재를 시작하였는데, 이것을 바탕으로 ‘내 생애 마지막 연합체육대회(한국체육사학회지, 2009)’, ‘호모스포츠쿠스’(한국스포츠인류학회지, 2008), ‘봄날은 간다’(한국체육사학회지, 2009)와 같은 성과물을 얻을 수 있었다.

2) 이러한 우려는 논문 발표 후 일정 부분 현실로 나타났다. 글을 쓰는 한 분이 논문을 읽은 독후감은 매우 신랄한 것이었다. 미주에 일부분을 소개한다.

3) 이 글의 제목을 보고 특별한 체육인의 이야기를 기대한다면 실망할 것이다. 이 시대 한국 사회의 스포츠 아이콘 박찬호나 박지성, 박태환과 김연아 대한 이야기는 프라임타임 스포츠 뉴스, 몇몇 스포츠 칼럼니스트의 이야기로 족하다. ‘강원대학교 체육인 구술사 연구회’에서는 2006년부터 도내의 유력 체육인들에 대하여 구술채록을 시도하고 있다. 홍중천, 최돈포, 함기용 등과 함께 한상준 교수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들 중 일부는 이미 고령으로 세상을 떠났다. 요즘에는 함께 공부하는 연구자들이 한국에서 최초로 여자 피겨스케이트를 했다는 분을 집중 인터뷰하고 있다.

4) 김재룡, 강원대학교. 박정준, 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글을 쓸 수 있는 지면이 있다는 것은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행운이다. 그렇게 ‘전체 모’와 함께 하는 체육교사로서의 내 삶은 언제나 절정이다.

1995년에는 남자공립인문계 구로고등학교로 진출한다. 구로고등학교에서는 1996년부터 3년 동안 ‘주구발’이라는 교사축구모임을 만들어 활동하면서 일주일마다 소식지를 만들었다. 그것을 나중에 합본하기도 하였는데, 당시 함께 근무했던 이들을 만나면 작은 역사가 되기도 한다.<sup>5)</sup> 1999년에 공학인문계 개포고등학교로 옮겼다. 2004년 3월, 서울시교육청에서 강원도교육청으로 전보 내신하였다. 만 19년 동안의 서울에서의 체육교사 생활에 변화를 준 것이다. 2004년과 2005년 두 해 동안은 속초시 속초상업고등학교(2008, 설악고로 교명 변경)에 재직하였다. 2006년과 2007년 두 해는 ‘특목고’인 강원체육고등학교에 재직하였다. 2008년부터 지금까지 공립인문계인 춘천여자고등학교에 재직하고 있다.

박사과정을 시작할 무렵 나는 강원체육고등학교에 재직하고 있었다. 속초상고에서 야구부와 육상부를 2년 동안 지도하다가 대학원을 핑계로 내신을 냈더니 덜컥 체육고로 발령을 내버린 것이다. 체육고등학교는 일 년 내내 ‘야전’으로 작동되는 곳이다. 권위적이고 위압적인 관리자들과 소통의 부재에 위축되어 있는 동료 감독교사들과 지도자들. 무엇보다 열악한 기숙사 시설과 훈련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운동선수들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매일 숨이 막히는 것만 같았다.

육상, 체조, 수영을 중심으로 14개 종목 24개의 세부 종목을 육성하는 체육고에서 나는 근대5종부와 중장거리 감독을 맡았다. 기숙사 사감의 방식, 운동부 학생들의 일상생활과 훈련방식, 특목고의 자율성만 내세우며 제멋대로 운영되는 교육과정, 경기 참가, 감독자회의, 각종 행사, 지도자와 학생들을 바라보는 관점 등 거의 모든 것들에서 교장·교감 등 관리자들과 사사건건 부딪히고 갈등을 빚는 날의 연속이었다. 무엇보다 일주일에 한 번 기숙사 사감실에서 숙식을 해야 하는 사감생활은 고통스러웠다.

방법이 없었다. 그들과 나의 생이 같을 수 없으니 내 길을 가는 수밖에 없다고 맘을 먹으니 조금 편해졌다. 낯설기만 했던 강원도의 전반적인 교육환경도 익숙해져 갔다. 관리자들이 나에게 갖고 있던 의구심이나 경계심도 차츰 누그러져 갔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면 될 일이었다. 이년 만에 체육고를 벗어났다. 막장이라고 생각했던 곳을 떠났으니 해방감이 오죽했겠는가. 그런데 같은 공간에서 잠을 자고 밥을 먹으며 생활하던 학생 운동 선수 아이들에게는 뒤통수가 당기는 것 같은 미안함이 있었다. 정과체육의 체육교사로서 엘리트운동 선수들과의 관계도 숙명과도 같은 것이라는 것을 늦게 깨닫게 되었다.

2008년 춘천여고로 옮기면서 본래 체육교사로 돌아왔다고 생각했지만 그것도 착각이었다. 전통 명문의 공립 여자고등학교의 일상도 숨 막히기는 마찬가지였다. 정

---

5) 구로고등학교 재직 시 학교선생님들과 모여 공 찬 이야기를 가지고, 2008년 전국체전 학술대회 체육사학회 분과에서 ‘주구발 약사略史’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규 체육교과 운영에서 내 수업만큼은 스스로의 수준에서 판단하고 교과 수업에 임하면 될 것이었지만, 동료 체육교사들의 수업역량과 방식은 구태의연하기 그지없어 보였다.

명문 여자고등학교라는 학교 공동체는 입시에의 함몰, 교육력을 창출하기 보다는 학생들의 근태 문제, 치마 길이와 전쟁을 벌이듯 하는 관리자와 교사들의 응졸함. 농구부와 펜싱부 학생들의 끊임없는 일탈과 학교 부적응. 어느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교육 모순들이 드러났다 덮어지고, 튀어나왔다 사라지거나 묻히는 등 느닷없는 날들의 연속이었다. 어쨌든 학생들이 교문을 들어와 교실을 채우고, 운동장과 체육관에서 아이들이 재잘거리고 있는 모든 날에 학교는 살아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일상은 모든 것이 죽어 자빠져있는 것처럼, 운동장이 텅 비어 있고 적막이 감도는 이상한 곳도 학교이다. 이러한 가운데 나는 박사과정을 마칠 동안 생애사를 쓰기 위한 문턱도 문지방도 넘을 생각도 못하고 세월만 죽이고 있었다.

## 생애사와의 만남

개포고등학교로 부임한지 얼마 되지 않은 어느 날, 류태호<sup>6)</sup> 선생이 학교로 찾아왔다. ‘전체모’를 만들 때부터 잘 알고 지내 온 좋아하는 후배였다. 서울대학교 박사과정에 있던 류태호 선생은 그 날 이후 나를 ‘연구대상자’로 하여 논문을 썼고 학위를 받았다.

“체육교사의 직업적 정체성 형성에 관한 연구-생애사를 중심으로”(류태호, 2000)는 당시에 체육인문학을 공부하는 이들에게 선구적인 질적 연구 결과물로 받아들여졌다. 교육학 박사학위였다.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출신이, 체육학이 아닌 교육학 학위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나는 두고두고 아쉬워 할 것이다. 그는 내가 살아 온 세월의 거의 전부를 기록으로 남겼다. 뿐만 아니라 당시 내가 가지고 있던 웃음, 눈물, 상처, 외로움, 부끄러움, 치기, 부족함, 넘침 등 나의 모든 것들을 낱것으로 드러내 주기도 하고 감추어주기도 하였다. 류태호가 연구를 진행하는 동안 우리는 자주 만나 함께 웃고 울었다. 지금은 교수가 되어있는 류태호 선생이, 당시 학위논문을 완성하는 모습을 보면서 교육대학원에 입학하였다.

2002년, 두 번째 부임한 학교에서 잘 따르던 녀석이 결혼식 주례를 서 달라는 것이었다. 아무리 가깝게 지낸다고 하지만 난감한 일이었다. 고사를 하고 읍박지르기도 하였지만, 몇 번 안면이 있던 그 녀석 어머니까지 나서는 바람에 덜컥 그러마하고는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마침 언약을 맺은 두 친구는 고교 동기동창 커플이었다. 워낙 가까이 보아 온 친구들이이었는데 당시에는 그들이 사귀는 줄도 몰랐었다. 할 수 없었다. 생각 끝에 그들의 앨범들을 갖고 오게 하였다. 당시에 학교에서 한참 수업자료로 만들던 ‘프레젠테이션’을 생각해 낸 것이었다. 결혼식에서 신랑 신부의 사진을 보여주자고 작정한 것이다. 그렇게 학교로 직접 가져온 앨범을 뒤적

6)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교수. 당시 신수중학교 교사.

이며 재미있는 사진들을 뽑아 스캔하였다. 수백 장의 사진들 중에서 볼거리가 될 만한 것들을 골라내는 재미도 쏠쏠하였다.

사진 한 장 한 장에는 성장과정부터 가족사가 오롯이 들어있었고, 그것을 모으니 신랑 신부의 '생애사'를 보여주는 것이 되었다. 실제 결혼식에서는 '주례가 아니라 이혼인을 주관'하는 입장이 되고자 한다며 결혼식을 진행하였다. 신랑과 신부 부모 결혼식 사진, 둘 사진을 비롯하여 성장과정을 대비시키며, 사진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불러내어 인사를 시킨다든지, 덕담을 하게 하는 등 결혼식 분위기를 밝고 유쾌하게 이끌어 갈 수 있었다.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또 한 번 첫 학교 졸업생 한 녀석의 결혼식 주례를 보게 되었고, 당시에 근무하던 학교의 교장<sup>7)</sup> 퇴임식에서도 슬라이드로 압축된 생애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방식으로 주마등처럼 사진으로 보는 생애는 대단히 흥미로운 것이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누구나 다르면서 같고 같으면서 다른 '산다는 것의 같음과 다름의 변증법'에 놀라게 된다.

2004년에는 대학교 은사이자 이 글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한상준 교수의 정년퇴임에서도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였다. 2009년 2월과 2010년 2월에도 재직하고 있는 학교의 명예교사와 교장의 정년퇴임식에서 그들이 살아 온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들과 가까이 지낸 이들에게 교직의 길을 걸어 온 한 생애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을 도와준 셈이었다.<sup>8)</sup> 결국 개인 생애의 아카이브인 앨범 사진을 정리하여 한 생애를 이야기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내 전공처럼 되어버린 것이다.



< 최백순, 김혜영 결혼식 >

그런데 문제는 한사람의 생애를 들여다보는 방식에 있다. 무엇보다 한 생애를 일

7) 개포고등학교 제 5대 최인용 교장.

8) 한상량(62) 춘천여고교장이 오는 23일 오전 11시 교내 다목적실에서 정년퇴임식을 갖고 38년 11개월의 교직 생활을 마무리한다. 정년을 앞두고 '왜냐하면 그러므로'를 출간한 한 교장은 춘천고, 강원대,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을 졸업하고 고성고, 강릉고, 장성여고 교사를 거쳐 황성교육청 교육과장, 도교육청 교원인사과 장학관, 춘천여중, 춘천여고 교장을 지냈다. 강원일보. 2010.01.17

마만큼 애정을 갖고 들여다보려 하느냐에 따라 이야기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애정과 친밀감을 갖고 들여다보았던 된 결혼식 주례나, 한상준 교수와 최인용 교장의 퇴임식의 프레젠테이션 작업은 즐겁기 그지없었으나, 다른 두 사람의 경우는 '마지못해 하는 일'이 되어버려 짜증과 함께 스스로 대략 한심하기까지 하였으니.

어쨌든 이렇게 한 세월을 살아 온 사람들의 사진을 들여다보노라면, 한 사람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가 곧 그의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생각을 굳히게 된다. 그들이 살았던 그 순간, 바로 지금이었던 시간의 축적이, 섭리와도 같이 한 인간의 생애가 된다는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바로 지금이 나의 미래인 것이다. 내가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 바로 지금이 나의 먼 미래라는 것. 이러한 자각이 시작되면서 '생애사 쓰기의 어려움'의 입구에서 서성거렸다는 생각을 해 본다. 어쨌든 나는 류태호의 학위 논문으로부터 시작하여 이러한 일들을 겪으며 생애사와 만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고등학교 체육선생 목기

SKY. 서울대학교와 연·고대를 이야기 하듯이 고등학교를 지칭할 때 흔히 서울·경기·경북을 꼽는다. 아마 이것이 민사고 대원외고 등으로 순위가 바뀌었는지도 모른다. 서울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의 어느 곳이나 메이저 인문계 학교들이 존재한다. 한국사회의 교육현장은 완벽하게 서열화 되어 있고 그 안에서 모든 제도가 작동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는 성장과 발전이라는 근대적 가치에 사로잡힌 무한경쟁의 이데올로기에 매몰되어 있다. 그리고 그것은 기득권의 재생산이라는 탐욕과 함께, 분리와 배제의 공포를 바탕으로 하는 국가와 자본의 제도 속에서 무한증식하고 있다. 이것이 이러한 제도 안에서 밥을 빌어먹고 있는 한 교사의 현실 인식이다. 말하자면 나는 '고등학교 선생 목기'이다. 그러므로 내가 하는 모든 이야기들은 그 틀의 안팎에서 오가게 될 것이다.

철학자 김진석의 이야기를 빌리면 한국사회에서는 철학뿐만 아니라 내가 마주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리고 교육현실은 한마디로 더럽다. 중등교육현장의 내부자로 살아가는 한 사람의 교사로서 이러한 교육현실에 때론 분노하곤 하지만 그 뿐이다. 한 때는 '전교조'라는 조직과 대안이 있었지만, 이와 같은 교육현실에서 탈주하지 않는 이상 지금은 방법이 없다. 나는 교사로서 교육현장의 더러움을 무릅써야만 한다. 결코 알량하지 않은, 나의 이 정규직을 지키기 위해서.

어쨌든 내가 머물고 있는 교육현장은 상급학교 진학, 그 중에서도 소위 일류대학을 지향하는, 대학으로의 '돌격 앞으로'만이 판을 친다. 공교육 안에서는 자율학습과 특기적성으로 이름을 바꾼 보충수업으로, 사교육은 입시권력화한 중앙·대성·종로를 전면에 내세워 '교육'이라는 이름을 걸고, 학부모와 아이들을 가림주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도 모자라 국제고·자사고들을 만들어내면서, 모든 것을 국가가 통제하고 전유하겠다는 교육현장은 말하자면 가관도 아니다.

지난 2월, 재직하고 있는 학교의 교장이 정년퇴임을 했다. 같이 한 술 밥을 먹었고 교직의 선배이니만큼 나름대로 의미 있는 퇴진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인지상정일 것이었다. 그런데 앞에서 쓴 것처럼 그의 앨범을 보면서, 프레젠테이션으로 하는 퇴임식을 준비하면서 짜증이 밀려오기 시작했다. 퇴임하는 교장은 이 지역의 명문고를 나오고 지방대학을 나왔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의 교원양성과정을 거쳐 교사로서 탄탄대로를 거쳐 왔다. 도교육청 인사담당 장학관까지 지냈고, 교감·교장을 12년 넘도록 지냈으니 교육행정가로도 성공한 이였다. 항상 자세가 바르고, 신중하며 무례하지 않은 그는 언뜻 보기에 모범적이며 완벽한 교사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 퇴임하는 교장은 ‘서울대학교병’ 환자였다. 그가 한 일 중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일이 고3담임을 하면서 입시전문가 대접을 받은 일이었음은 물론이다. 강원도의 경우, 춘천·원주·강릉의 이름을 가진 남고·여고가 전통 명문고교인 것이다. 그는 그중 영동에 있는 남고에서 고3담임을 할 때 80명이 넘게 서울대학교에 진학한 일이 있는 것과, 영서의 남고에서 3학년 부장을 할 때 30여 명, 퇴임하는 학교인 여고에서 올 해 일곱 명의 서울대학교 진학자를 낸 것을 생애의 가장 큰 보람으로 삼는 것이었다.

그는 자서전까지 써 내며 이러한 자신의 교직경험을 자랑했다. 교감 시절엔 입시전문가인 자신을 오지의 실업계학교에 발령 낸 것에 대하여 분노하기까지 한다. 그는 그렇게 외길을 걸어왔고, 교사로서의 자존심을 지켜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나는 그의 삶을 바라보며 우울함을 너머 기가 막히기 까지 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 체육교사로 살아가는 나의 자화상이다. 나는 교사로서 앞에서 이야기한 교장과 같은 삶을 살수도 없을뿐더러, 그렇게 살라고 하면 나를 모욕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산다. 그래봤자 제도교육에서 탈주하지 못하고 대략 한심하고 뻔뻔스럽게 더러움을 무릅쓰며 고등학교 선생으로 밥을 먹을 주제이기에 그렇다. 어쨌든 탐욕과 공포에 사로잡힌 이러한 교육 담론들이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있음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들은 당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족쇄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 허공을 짚고 허방을 던는 일

질적 연구 방법의 최대 강점은 정형화 된 어떤 틀이 없다는 것일 것이다. 이러한 자유로움 때문에 결국 질적 연구자들에게는 시 쓰기와 같은 문학적 글쓰기가 로망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듯 나는 한 편의 시를 쓰듯, 혹은 읽듯, 한 사람의 생애를 써내려 갈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그러나 나에게 아직 시인의 길은 멀다. 그러나 또한 나는 이 세상에는 만들어진 무수한 시들이 중음신(中陰身)처럼 떠돌아다니고 있음도 잘 알고 있다.

내가 쓰는 글들의 들머리에는 몇 편의 시들이 인용되곤 한다. 무슨 품 잡는 것쯤으로 여겨도 할 수 없다. 그러나 나는 체육선생이 되기 이전부터 시를 썼다. 결국

좋은 시인이 되지는 못하였지만, 좋은 체육선생에 다가가려 한 만큼 좋은 시를 열망했다. 그 열망이 어떤 끝을 맺을지는 아직 모른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나는 별볼일 없는 시인이라는 이름에 기대지 않고 체육교사로서, 시를 쓰고 읽으며 이러한 글을 쓰는 스스로에게 만족스럽다는 것이다.

결국 논문을 쓰면서 맞닥뜨린 문제들은 접근방식의 무지와 어리석음에 의해 무엇인가에 사로잡혀 헤어날 수 없는 것이었고, ‘글쓰기’의 문제였던 것이다. 그 때까지 내가 파악한 구술사 방법론을 따르면 구술 채록문만으로도 훌륭한 성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연구자의 책임 있는, 궁리의 과정을 거친 해석이 따르지 않는다면, 더욱이 학위논문에서 보자면 학문·학제간의 영역에서 탈주하지 않는 이상 무의미한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생애사는 문화기술지로서 인류학적 연구방법으로서의 해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또한 “누구나 현재 안에 생애의 모든 단계를 함축하고 있다.”(김찬호, 2009)라는 견해를 따른다면, 연구자는 당연히 구술을 통해 함축되어진 것들을 발견해 낼 책무가 있는 것이었다. 나는 해석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었다. 클리퍼드 기어즈 『문화의 해석』, 그리고 류태호의 논문과 같은 그런 것. 그러나 과연 해석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었을까. 해석에 대한 강박관념에 사로잡히는 것은 늘과도 같은 것이었다. 해석에 사로잡힌 채 본격적인 글쓰기는 진도가 나갈 리 없었다.

체육선생 목기인 나의 관심은 많은 부분에서 근대성과 식민주의와 같은 체육·스포츠의 외부라고 여겨지는 것에 집중되어 있었다. 늦어도 아주 늦게 역사공부에서 근대성에 대한 탐구가 먼저라는 것을 발견하였다고나 할까. 할 수 없는 것이었다. 주류가 아닌 주변에서 서성이든 체육인문학을 공부하는 이들이 너머서야 하는 통과 의례와 같은 것들도 분명히 있는 것이다. 박사과정을 시작하고 일 년 쯤 지났을 때 천정환의 『끝나지 않은 신드롬』 III을 만났다.

이 책을 읽으며 나는 문사철文史哲, 말하자면 문학과 역사와 철학이 어우러진 서글프면서도 유쾌하고, 가벼우면서도 무거움이 함께 요동치는 감동을 맛보았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이러한 글을 써낼 수 있는 한 인간이 부러웠다. 무엇보다 체육·스포츠와 아무 관련이 없는 국문학을 전공한 친구가 ‘스포츠 현상’을 자기 입맛대로 배짱 좋게 ‘전유’하는 것을 접하고 열등감을 감출 수 없었다. 이러한 자괴감과 열등감은 연구를 진행하면서 점점 커져만 갔다.

지도교수의 연구실 세미나 팀과 함께 할 카페를 개설하면서 ‘체육·스포츠 문사철’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문사철을 중심으로 하여 시서화詩書畵에 능통한 선비가 되고 싶었던 것이다. 소가 웃을 일이었다. 나중에 깨달은 것이지만 그것은 체육·스포츠의 기생(寄生)이 되겠다고 자처하고 나선 꼴이나 다름없었다. 박사과정에서 공부를 하며 한국체육사학회와 스포츠인류학회를 드나들고 발표와 교류를 시작했다. 무엇보다 역사 공부의 먼저였기 때문이다. 천정환에 이어 전진성의 글도 천박하기 그지없는 나의 글쓰기와 사유를 압도했다.



처음에 공부를 시작할 때에는 구술사 방법만을 생각했었다. 기존의 역사학에 대하여 대항담론으로 등장한 구술사 방법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주류 역사학의 변방일 수밖에 없는 체육·스포츠사<sup>9</sup>에서는 모험이면서도 새로운 출구이기도 했다. 지도교수가 발견해 낸 길, ‘강원체육인 구술사 연구회’에서 시작한 구술사 연구방법을 따라가면 그만일 것이었다. 어쨌든 전진성의 『역사가 기억을 말하다』 IV와 역사를 이야기 하는 다른 책들을 읽으면서 다시 좌절할 수밖에 없었다.

전진성의 논의는 우리 연구실에서 시작하는 ‘구술사’에 대하여 커다란 힘을 실어주는 것이기도 하였다. 구술사 방법론에 대한 공부는 계속 진행하였고, 다른 역사관련 저작물들을 읽어갈수록 역사 담론의 무게에 눌러 점점 늪에 빠져들어 가는 것 같기도 했지만 명료해지는 것들도 있었다. 명료한 것 중의 하나는 방법론을 가급적 단순화시키겠다는 무모함에서 오는 것이기도 하였다. 대표적인 것으로 우리 연구실의 모토 하나가 ‘녹음기 하나 달랑 들고’와 같은 것이었는데 인류학과 역사학에 입문하는 초보자들의 단순무식한 방법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오컴의 면도날’<sup>9)</sup> 같은 것으로 다양하게 탐구방법에 대한 고민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막연하고 감이 잡히지 않던 ‘담론’이란 말에서 느껴지는 위압감에서도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었다.

명색이 체육사를 전공하면서 역사 담론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것은 분방하게 풀어쓴 남경태의 『역사』를 일별하고 난 후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사철이란 것이 하루아침에 통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갈 길은 멀었는데, 사는 것은 일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리멸렬했고 세상은 온통 아비규환이었다. 발등에 불이 떨어졌음에도 무지와 어리석음을 튼튼하게 뒷받침하고 있는 게으름이라는 병이 발목을 잡았다. 정규직 노동자로서 밥값을 해야 한다는 것도 구차한 변명에 지나지 않았다.

막연함만을 갖고 시작했으니 쉬운 길도 돌아가게 될 일이었다. 쉬운 길을 눈앞에 두고도 찾지 못하고 있었다. 그것은 하루라도 빨리 이 연구의 주인공인 선생님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그것을 전사해 1차 자료를 만드는 것이었다. 그것이 생각보다 더더졌다. 준비가 덜 되었거나 덜 익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었다. 선생님의 구술을 따 놓고도 전사할 생각도 하지 않고 방치했던 것이다. 무지와 어리석음, 게으름이 일상을 덮고 있었다.

결국 나는 생애사로 학위논문이란 것을 쓰면서 ‘내 이야기’를 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다. 더욱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반구조화 된 질문지조차 만들

---

9) 어떤 현상을 설명할 때 불필요한 가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하는 말로 번역하자면, ‘같은 현상을 설명하는 두 개의 주장이 있다면, 간단한 쪽을 선택하라’는 뜻이다. 여기서 면도날은 필요하지 않은 가설을 잘라내 버린다는 비유로, 필연성 없는 개념을 배제하려 한 "사고 절약의 원리"(Principle of Parsimony)라고도 불리는 이 명제는 현대에도 과학 이론을 구성하는 기본적 지침으로 지지받고 있다(이진경, 2005).

지 않았고 몇 차례 녹음 된 것도 전사하는 작업을 하지 않았으니, 나중에 이어질 인터뷰에서도 똑같은 질문과 대답이 이어질 것이었다. 이것은 연구에서 치명적인 것이다. 무엇보다 연구참여자에게 예의가 없는 것이었다. 예의를 모르는 것들은 혐오스러운 것이다. 나는 연구자의 자격이 없었다. 나는 자기혐오에 빠져든 것이다. 그러나 연구자인 나의 철저하지 못함, 무지, 어리석음, 게으름에는 모두 이유가 있기도 하였다. 등 부비고 기댔 언덕이 있었다. 선생님은 기꺼이 등을 내주셨다.

그러나 나는 다시 혼란에 빠졌다. 선생님과 나는 이야기들을 어느 정도 전사해, 텍스트로 만들어 놓고 본격적으로 글쓰기에 들어갔다. 그렇지만 내 이야기를 하고 싶은 욕망이 앞서 있었으므로 이야기는 자꾸만 다른 곳을 헤매고 있었다. 내 안에는 차마 버리지 못한 어떤 것들이 가득 들어차 있었으므로, 이 연구의 주인공이 내 안으로 들어올 수 없었던 것이다. 본격적으로 글쓰기를 시작하면서, 텍스트로 돌아가야 하는데 방향을 거듭하고 있었다. 내 안에 꿈틀거리고 있던 허망한 것들을 모두 비워내지 못하고 움켜쥐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방향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그렇게 허공을 짚고 허방을 디뎠다.

어느 날 불현듯 써지지 않는 시를 대신해 내가 시가 되기로 했다. 말하자면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나는 별이 되었고, 망망대해 앞에 서게 되면 내가 바다였다. 갈 데 까지 간 것이었다. 세상의 끝에 섰다. 허공을 짚고 허방을 던지는 것도 모자라 무지와 어리석음에 먼지만도 못한 자만自慢이 들쭉거린 도끼가 스스로의 발등을 찍었다. 스스로 발등을 찍는 연구자가 무슨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지 못하겠는가. 이 연구가 학위 논문이기는 하였지만 결국 나와 관련을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를 드러내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연구물의 제1독자는 당연히 이 연구의 참여자인 선생님과 연구자인 나 스스로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었다. 나는 이 두 독자, 그중에서도 스스로에게 만족할 만한 글을 써 낼 자신이 없었던 것이다.<sup>10)</sup>

글쓰기의 두려움은 그런 것이었다. 이러한 두려움을 벗어나게 해 준 이들이 다음 순위의 독자들이었다. 이 연구 결과물에 목을 빼고 있는 이들, 지도교수와 류태호 교수였다. 그러나 이들에게 덜 익고 허점투성이의 글을 들이밀 수는 없었다. 부끄럽고 창피하기 그지없었다. 그러나 이 두 양반은 커다란 관심뿐 아니라, 무한대의 믿음과 신뢰로 기다려주고 있었다. 그렇게 누군가 나를 믿어주고 격려해 주는 모습 앞에서 두려움이나 무서움 같은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러한 것들을 알아가는 것이 바로 반성과 성찰이었다. 나는 이제 겨우 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한 체육 교사일 뿐이었다.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나는 다시 이 연구의 최종 '텍스트', 선생님에게서 딴 인터뷰 채록문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

10) 실제로 논문 심사과정에서 류태호 교수에게 지칭구를 많이 들었다. 요컨대 '말은 잘하면서 쓸 수 있는 걸 왜 쓰지 않느냐'는 말로 압축할 수 있다. 당시에는 새벽까지 설전을 벌이며 그에게 '당신이 써!'라고 소리를 지를 뻔하였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바로, 류교수의 제안대로 논문 전체의 틀을 뜯어 고칠 수 있었다.

## 꽃 피고지고 피고 지고

지금까지 대략 한심하게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만난 생애사 쓰기의 어려움은 첫째, 생애사에 대한 편견. 둘째, 해석에 대한 강박. 셋째, 자기이야기를 쓰고자 하는 욕망. 넷째, 자괴감과 열등감으로 인한 글쓰기의 두려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중에서 내가 가장 힘들었던 것은 해석과 욕망이었다고 하겠다. 그렇게 한참 어려움을 겪고 있던 지난겨울 막바지에 지도교수는 몇 권의 책을 건네주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

“면담 상황에서 구술된 이야기를 문자화 된 텍스트로 만드는 과정에는 연구자의 해석이 이미 들어가 있는 것이다”(유철인, 2004)Ⅴ.

무슨 말이 필요하겠는가. 그동안 써 놓았던 학위 논문을 뒤집어 ‘생애사 텍스트’라는 쪽지를 집어넣고 재배치하여 ‘텍스트 만들기’, ‘생애사 텍스트’, ‘사진인터뷰 텍스트’ 등으로 구성하여 학위논문을 완성할 수 있었다. 내 이야기를 하고 싶은 욕망에서는 별로 벗어나고 싶지 않다. 나와 무관한 삶인 어떤 생애를 내가 쓸 일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글을 쓴다는 행위 자체가 욕망의 발현임도 부인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글을 쓸 수 있다는 것, 특히 생애사를 쓴다는 것은 커다란 축복이자 행운이다.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11일까지 열사흘 동안 잠적 같은 것을 할 수 있었다. 검정고시 출제위원으로 간택(?) 되었던 것이다. 한 콘도에서 머물다가 풀려나자마자 받아든 전화기에 첫 문자가 뜬다. 학교 1학년 아이 한 명의 사망소식. 집에서 목을 맨 채 아버지에게 발견되었던 것이다. 지난 일요일 저녁이었다. 월요일, 그 아이가 하늘로 가는 길을 직접 학곡리 화장장에서 지켜보았는데, 목요일에는 또 다시 2학년 한 아이가 점심시간에 학교를 나가, 자기가 사는 아파트 14층에서 투신하였다. 그 죽음을 뒤로 하고 그날은 오후에 강릉에 닿아 지인의 부친상을 조문하고 돌아오니 자정이 넘었다. 그렇게 천안함 말고도, 저 티벳족의 지진참사 현장 말고도, 이렇게 연일 죽음은 바로 내 앞에 놓여있다.

그러나 꽃 피고지고 피고 지는 봄날이다. 대략 ‘한심하거나 뻔뻔하거나, 더러움에 빠지지 않기 위해 더러움을 무릅쓰다가’ 결국 죽음까지 무릅써야 하는 것이 인간일 밖에. 죽음이라는 오래되고 먼 미래와 살아가기. 그것이 곧 생애사 쓰기와 함께 하는 것이었으면 좋겠다.

묵언默言 / 하루 만이라도 말을 하지 않고 /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다 / 택도 없었다 / 직업이 선생이었다 // 금연禁煙 / 담배를 끊었다고 장담했다 / 밥집에서 계산하고

나오는데 / 봄날은 간다라는 노래가 들렸다 / 한 개피 얻어 피웠다 / 당연히 실패했다 //  
종언終焉 / 절제와 생략 같은 그런 / 조금 더 진중하고 세련된 / 그런 글이 아니면 / 시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 하이쿠 같은 아포리즘 같은 그런 거 / 실패해서 다행이다 / 당신에게  
또 편지를 썼다 // 침묵沈黙 / 오늘도 당신은 말이 없다 (「나의 멘토Mentor」 유심. 2009)VI

## 참고문헌

- 김영미(2009). **그들의 새마을운동**. 서울: 푸른역사.  
김진석(2010). **더러운 철학**. 서울 : 개마고원  
김찬호(2009). **생애의 발견**. 서울: 인물과 사상사.  
유철인 외(2004). **인류학과 지방의 역사**. 서울: 아카넷.  
유철인(2004). 구술된 경험읽기: 제주 4·3관련 수형인 여성의 생애사. **한국문화인류학**. 37-1  
윤택림(2003). **인류학자의 과거여행**. 서울: 역사비평사.  
전진성(2005). **역사가 기억을 말한다**. 서울: 휴머니스트.  
천정환(2006). **끝나지 않는 신드롬**. 서울: 푸른역사.

- 
- I. <지도교수와 나는 ‘궁즉통’이라는 재미있는 모임을 갖고 있다. 서로를 ‘궁패’라고 부르는데, 주로 강릉 지역의 시인, 소설가, 철학자, 만화가, 교사, 교수 등이다. 그 중에서 아주 좋은 글을 쓰는 한 소설가의 독후감 일부를 소개한다> 논문에서 다룬 한상준이라는 분은 특별한 분이 아니더군요. 물론 그날 박기동궁패님이 말했듯이 생애사는 꼭 특별한 인간만이 대상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장삼이사 누구나 생애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을 저는 매우 인상적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 분이 특별한 생애였기를 기대한 것은 애초부터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의 생애이든 거기에는 감동적인 구석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했습니다. 그러나 이분 생애에는 감동이 없었습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논문에 표현된 이분의 생애를 떠올려봅니다. / 고등시절 운동선수 출신인데도 머리가 좋아 서울대사범대학 체육교육학과에 입학하는 바람에 후의 길고도 긴 인생이 정년퇴직까지 술술 잘 풀린 역세계 운이 좋았던 평범한 아저씨의 일생으로 읽었습니다. 그런 생애를 일러 시대운이라 해야 할까 모르겠습니다. 논문에서 의미부여를 한 것처럼 특기할 만한 체육인으로서 이념을 갖고 산 분 같지는 않고, 소탈하게 그저 성실하게 살아온 생활인으로 체계는 느껴졌습니다. 달리 말하면 지방국립대의 흔하디흔한 교수직으로 일관한, 그렇고 그런 생애일 수도 있겠지요. 저는 대학사회 구성원들, 특히 교수들의 사고방식, 일상사, 주요 관심사에 대해 잘 알지요. 진짜 소수의 학자들을 제외하고는 사회내 엄청난 대접 속에서 맨날 보직이야기, 새 교수들 선임하는 이야기, 즉 학맥과 파벌조성, 노는 일, 부동산과 주식 등 돈에 대한 깊은 관심, 제자들을 마치 강아지인양 다루는 못된 버릇 등이 먼저 떠오릅니다. 거의 다 매우 속물적이지요. / 다시 이분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80년대 학생들이 독재타도를 외치며 민주화운동을 하고 옥

상에서 떨어져 죽던 시절에 이 분은 학교에 잘 보여 학생처장을 하지요. 그 시절 학생처장이 하던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데모하는 애들 죽치고, 명단을 정보원에게 넘기던 일을 바로 그들이 했지요. 더구나 체육대학생들은 그 흉악한 시절 논문에도 나오지만 '구사대' 노릇을 하기도 했지요. 체육대 애들이 지키려던 가치는 민주적 가치가 아니라 학교/정부/권력이 지키려던 가치였지요. 다른 학생들이 그런 구사대로서의 체육인을 어떻게 바라봤을까 생각하면 등덜미에서 땀이 날 일이지요. 진명여고 시절에도 체육과 출신 교장의 사랑을 듬뿍 받아 교장실 위층의 담임이 되어 남보다 일찍 출근하고 남보다 늦게 퇴근하더군요. 이 분은 체제순응형의 사람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교사/교수사회에서 이른바 성공한 사람들이 대개 그렇지요. 그래서 김궁패는 '저항과 탈주'를 하지 못한 생애였다는 이야기를 은근슬쩍 내비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저항과 탈주' 이야기를 더 진행시키지는 않더군요.....

II. <이 글은 1990년 12월에 쓴 것이다. 20년 전의 체육교육 현장과 지금을 비교해 보자는 뜻에서 일부분을 옮겨 본다.> - 체육교육문제 토론회를 개최하며// 척박한 교육현실이 개선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이 땅의 체육교사이신 선생님께서도, 그 순간 매트 위에 털썩 주저앉아 아이들의 앞돌기를 보조하며 이마에 맺히는 땀방울을 옷깃으로 쓱 닦아내고 계셨겠지요./ 동시에 체육관 따로 강당까지 갖추고 수영장이다 넓은 운동장이 있는 다른 학교들을 떠올리며, 같은 등록금 내면서도 체육관을 지을만한 부지는 고사하고 대각선으로 100m도 나오지 않는 운동장에서, 대여섯 반의 아이들과 함께 씨름을 하며, 도무지 비교가 되지 않는 교육환경에서 희생되어가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울분을 삼키시지는 않으셨는지요./ ..... / 스포공화국에서 다시 골프공화국으로 이어지는 기막힌 시대상황 앞에서 정작 모든 국민의 체육스포츠의 직접 담당자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은, 우리들의 뜻과는 전혀 무관하게 올림픽과 상업화된 스포츠체육이 기만적인 정권에 의해 무참히 왜곡되고 이용당하는 것을 혼자 가슴 앓으면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 나약한 모습은 없었는지요. 그런 혼자만의 고민은 우리들을 민족이나 역사 앞에 얼마나 초라하게 만들었습니까./ ..... / 체육시간이 아니면 뛰여 노는 아이가 보이지 않는 텅 빈 운동장으로 공부 많이 시키는 좋은 학교의 척도가 되는 이 땅에서, 우리 체육교사들은 그들 “민족의 양심”들이 양순하게 길들여지도록 하는데 일조를 해온 것은 아닐런지요. / ..... / 아이들은 물론 선생님들도 운동장에서 뛰고 난 후 주체할 수 없는 땀을 씻어내 수 없는 공간과 시설이 없어 개운하게 하루를 마무리 할 수도 없었으며, 누가 보아도 딱한 처지인 비인기 종목의 운동부 아이들을 맡아 감독하면서도 그들에게 쏟는 정성에 비해 구조적인 모순으로 대부분의 아이들을 제대로 상급학교에 진학시키지도 못했고, 좌절하며 희생되어 가는 아이들을 고통스럽게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수업중이나 특별활동시간에 어쩔 수 없는 안전사고를 당한 아이를 들쳐 업고 병원으로 뛰어가며 안타까움에 속으로 울음을 삼켰습니다. / 이러한 우리들의 작은 이야기들을 모아 오늘의 이 모임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의 부끄러움에 대한 작은 반성으로부터 출발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의 아이들이주체적인 삶을 가꿔나가는 소중한 일을 더불어 하자는 소박한 마음입니다.....

III. (에필로그 부분) 당시 내 입장은 2002년 6월의 ‘자발적 동원’의 무해성無害性을 주장하는 논리와 박노자류의 논리, 중간쯤에 있었던 것이다. 지금은 내 마음이 불편했음의 본질이 ‘대애~한민국’과 ‘오. 필승 코리아’와 무관하게 오랫동안 단련한 복잡한 콤플렉스로 뭉쳐진 사랑을 자본과 국가가 전유해버리거나, 그리고 그해 6월에 급조된 ‘뇌동성’ 축구팬과 공유하는 것이 싫었던 탓이라 좋게 성찰 할 수 있다. / 그 6월의 무해함도 훗날 증명되었다. 그것은 딱 맞지는 않지만 누군가의 말따마나 ‘자발적인 동원’이었고 일종의 축재였다. 거기 전체주의가 추구하는 심각하고 신성하며 비장한 것은 거의 없었다. 무해함은 그 6월의 공허함이 증명하는 바이기도 하다. 신드롬은 공허해야 한다. 그리고 처음의 화두와 연결시켜 말하면 그 신드롬이 건강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원인도 바로 거기에 있었다. 즉, ‘이번에는 무조건 16강 가야 되요’라는 정말 ‘축구 같은’ ‘한국축구 사랑’이, 어울리지도 않는 빨간 티 입고 태어나서 난생 처음 축구장에 나타나서는 어색하게 손 흔든 정치인들이 기도한 음험한 ‘정치적 진유’나, 나 같은 자생적인 ‘한국 축구팬의 한恨’ 같은 별로 질 안 좋은 것들만 축구를 향유했던 게 아니라서 다행인 것이다. / 기본적으로 근대 스포츠는 국가주의와 남성중심주의를 재생산하는 역할을 해왔다. 그리고 축구는 그 중에서도 가장 농도 진한 퍼포먼스다. 그러하기에, 예의 드로인을 왜 하는지 모르는, 김남일이 잘생겼는지 안정환이 나은지를 따지는 아줌마와 소녀들, 그리고 신성한 태극기로 미니스커트 해 입은 저 달동네 아가씨들과 함께 봤기 때문에 다행이다. 물론 그들도 그 축구 때문에 일시적으로나마 ‘국민’이 되어 ‘대한민국’을 응원했지만. 그런 ‘국가적정치적 축구’의 타자들로 인해 그 신드롬은 얼마간 교정 받을 수 있었다. 그 신드롬은 ‘권력’과 자본에 의해 다 영토화 되지 않은, 탈-근대적인 현상이었기 때문에 건강했다. 그 6월은 전쟁과 국가의 역사가 아로 새겨진 근대적 축구의 본연으로부터 훨씬 벗어난 ‘가족과 연인’의 카니발이기도 했다. / 그런 점에서는 2002년의 ‘월드컵 4강’은 모든 것을 새롭게 했다. 그것은 스포츠와 결부된 한국사의 기념비다. 나로서도 그 ‘4강’ 이후 내 속의 ‘축구열’을 많이 가라앉힐 수 있었다. 아마 거의 다시 이루기 힘든 업적인 그 ‘4강’은 분명 한풀이이자, 위장 크기에 맞지 않는 대단한 포식飮食이었기 때문이었으리라. / 한국의 스포츠민족주의는 1890년대부터 주조되고 그 내용을 바꾸어가다가 1920년대에 온전히 꼴을 갖추어 가기 시작했다. 일제 강점 이전, 황제가 있고 흉내에 불과한 것이거나 ‘제국’이 있던 짧은 시절에 처음 근대 스포츠가 시작되었다. 이때에도 물론 스포츠와 국가는 잘 결합했지만, 콤플렉스보다 중요한 것은 상무尙武나 국가(+ 황제)에 대한 충성 자체였다. 아직 열등감은 별로 없었다. 열등감에 기초한 민족의 집단적 무의식

과 스포츠가 결합한 것은 국권 상실 이후이고, 부르주아민족의, 혹은 실력양성론의 적극적인 주류에 의해서였다. 그 면면한 흐름 속에서 1936년 손기정의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우승은 가장 높은 봉우리고 그것은 1930년대에 발전하고 완성되었고, 20세기를 관통해서 간단없이 이어졌다. 그 우승은 근 40년간 자라나고 있던 문화민족주의의 극적인 완성이었다. 또한 열등감이 우월감으로 극적인 환치를 이룬 순간이기도 했다. 손기정은 인종적으로 일본인보다 결코 서구인에 못하지 않은 강인한 한국인의 완벽한 표상이었다. / 그랬던 까닭에 우승을 계기로 1936년 여름에 조선 반도를 뜨겁게 달군 신드롬이 일어났다. 당시 식민지의 민중들은 충분히 훈련되고 준비된, 민족주의적 관중이었다. 저널리즘이 불을 지피고 자본주의가 그 열풍을 증폭시켰다. 그 대중적 붐 또는 신드롬은 오늘날 우리가 주체가 되거나 관찰 할 수 있는 국가주의적 스포츠열기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그 신드롬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 거대한 전체인 데 비하여 역사에 대한 '기억'은 참으로 '단선' 그 자체다. 어떻게 역사를 서술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역사가와 문학가의 영원한 과제다. 이 책은 서사, 즉 역사 서술에 대한 일종의 실험이다. / 부르주아 민족주의의 한 형식이자 점진주의의 한 형태로서 문화민족주의는 식민지 조선인들에게 가장 오래, 가장 널리 영향력을 행사한 이념이었으나 1937년에서 1945년의 마지막 8년 사이에 군국주의 파시즘에 굴종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었다. 물론 그 종말은 다른 부활을 위한 잠재적 종말이기는 했다. / 일본은 역사상 가장 질이 안 좋은 군국주의와 인종주의로 식민지를 통치했다. 특히 식민지의 마지막 8년간 저지른 일들은 어떤 합리화에도 불구하고, 어떤 정치적 이념을 추종하더라도 용서해서는 안 되는, 범죄 그 자체였다. 용서될 수 없는 그 범죄에 동조하여 일부 조선인 지식인과 엘리트는 '친일'하거나 '부역'했다. / 다양한 변호론과 세련된 상황논리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부역 혹은 협력에 대해 면죄부를 발급해 주어서는 안 된다. 결코 양보하기 어려운 소중한 가치의 문제, 즉 평화와 자유, 민주주의와 평등이 통째로 거기 걸려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타락에 대한 변호론이 가능하다면 언제든지 민주주의와 자유의 논리도 포기될 수 있으며 끝까지 옹호하고 지켜야 될 당위란 없어진다. 즉 이는 단선적인 민족-반민족의 문제가 아니다.

IV. (역사학과 기억) 대개 역사의 진행이 '객관적'사건이나 구조의 전개로 상정되는데 반해, 기억은 과거를 재현하는 다양한 이야기들(narratives)에 주목하게 한다. 이러한 시각의 전환을 단순하게 객관주의에서 주관주의로의 이동이라 볼 필요는 없다. 과거의 재현이란 단지 개별적 인식행위만이 아니라 문화를 전송하는 현실적 과정에 속한다. 이야기 구성을 통해 각 문화의 고유한 성격과 자기정체성이 형성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기억의 문제는 단순히 역사의 객관성에 타격을 입히는데 그치지 않고 현실 문화의 본질적 구조에 대한 보다 진진된 이해를 추구한다. / 역사학 영역에서 진보적이고 보수주의적인 기억담론이 가장 첨예하게 맞서는 지점은 바로 '타자'의 문제이다. 타자의 '다름(alterity)'을 적극적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일방적이고 폐쇄적인 자기정체성을 재고한다는 점에서 한편으로는 진보적이다. 역사학은 줄곧 민족정체성 형성을 본원적 목표로 삼아왔고 이를 위해 소수 엘리트의 주체적 의지를 애써 강조하며 이것의 계승을 역사의 연속성으로 규정해 왔다. 이제 역사학은 이러한 기억의 서열을 철폐하여 민족적 타자, 사회적 타자, 시간적 타자를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태도를 취하기 시작한 것이다. 타민족의 과거, 주변인의 과거, 현재와 무관한 아득한 과거는 더 이상 적대적 시선을 받을 이유가 없어졌다. 과거는 민주화된 과거를 확보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향은 다른 한편으로는 억눌려온 과거를 오히려 더욱 초라하게 만드는 것이기도 하다. '타자'는 신분제적 서열에서 해방되는 동시에 자본주의적 착취의 질곡으로 빠져든다. 타자의 '다름'은 이제 회귀물이나 이국적인 취향으로 소비된다. 역사학은 위기 시대를 사는 현대인에게 정서적 위안을 안겨주기 위해 머나먼 과거로의 여행에 그들을 초대한다. 그곳의 갖가지 풍물을 거리낌 없이 즐기는 동안 어느새 나의 상실된 정체성도 회복의 조짐을 보인다. 타자의 세계를 '타자화' 함으로써 불안정하던 나의 세계는 상대적인 일체감을 얻게 된다. / 이처럼 역사학에서 기억 문제가 갖는 함의들은 상반되지만 적어도 역사적 진리에 대한 구태의연한 관념을 배격한다는 점에서만 큰 공통분모를 지닌다. 이념적 논쟁으로 번져 기존 역사학의 공리와 방법론을 문제 삼게 되었고, 결국 역사학의 전환을 이끌어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신문회사(new cultural history) 연구의 등장이다. 상반되는 이념적 지형에서 분출된 기억의 용암은 역사학의 드넓은 대지를 불사르다 결국 문화사라는 대하大河로 흘러든다. 1980년대 이래 서구 역사학계를 잠식해 간 신문회사 연구는 강한 회의주의에 기반하고 있다. 그것은 역사학의 관심을 거창한 역사적 진리에서 자기 자신에게로 이동시켰다. 이에 따라 정치적 사건이나 사회적 구조 대신 과거를 재현하는 형식 그 자체가 새롭게 부각된다. 즉 역사이야기의 구성과 화자(話者) 및 수용자, 그리고 그것과 결부된 다양한 문화적 양상들, 언어나 이미지와 같은 재현의 매체들이 주요한 연구 대상으로 떠올랐다. / 신문회사 연구는 간혹 포스트모더니즘의 일부로 간주되기도 한다. 실제로 역사의 객관성을 부정하고 진리를 기표와 기의 간의 인위적 관계로 축소하는 등의 회의주의 경향은 양자에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포스트모더니즘이 불려일으킨 성상 파괴적 충동과 견실한 역사 연구를 동일시할 수는 없다. 신문회사 연구가 노정환 회의주의는 어디까지나 역사학이 자기성찰을 도모함으로써 새로운 역사 연구의 가능성을 열고자 하는 것이다. 그것은 기억담론이 본래 의도했던, 과거의 재현에 대한 성찰을 가장 철저히 수행한다. 이념으로서의 가치를 잃은 역사라는 관념은 그 자체로 경험적 역사연구의 대상이 된다. 이런 점에서 신문회사 연구는 기억 담론의 긴 여정이 다다른 종착점이라고 할 수 있다(전진성, 2004 : 27~29).

V. 생애사 연구방법의 기본적인 가정은 행동과 경험을 행위자의 관점 내지는 주관적인 관점에서 연구하고 이해한다는 것이다(Denzin 1989a, 1989b). 그러나 연구방법의 기본적인 가정이자 매력인 주관성은 개인적 주체

인 연구 대상자의 대표성과 개인적 서술의 진실성이라는 방법론적 쟁점을 제기해 왔다(윤형숙 1994, 윤택림 1994). 대표성의 문제는 한 개인의 삶이 한 사회를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가, 한 개인의 경험이 어떻게 전체 사회적 경험을 대표할 수 있는가 하는 생애사 연구의 목적과 관련된다. 따라서 연구의 목적이 개인을 통해 문화나 사회를 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에 초점을 맞추겠다. 즉 개인이 문화나 사회나 역사를 어떻게 나름대로 해석하고 있는지를 연구한다고 할 때에는 개인의 대표성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개개인은 독특한 존재인 동시에 나름대로 자기가 속해있는 사회나 문화를 대표할 수 있는 구성원이기 때문이다. / 그러나 생애사에 나타난 주관적인 관점은 생애사를 이야기 한 사람이 속하는 집단의 문화와 연결시켜야 한다. 즉 자기의 삶을 이야기 한 개인적 주체가 그가 속한 사회나 문화 속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를 밝혀주는 것이다. 그가 어떠한 사회적, 역사적 조건에서 살았는가, 그의 삶의 맥락은 어떤 것인가를 연구자의 시각에서 제시해야 한다. 같은 상황이나 사건이라도 개인이 사회에서 갖는 위치에 따라 달리 경험되고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개인의 삶의 맥락을 제시하고 그를 사회나 문화 속에 자리매김하는 작업은 생애사 분석의 출발이 된다. / 자료의 진실성 문제도 대표성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객관성의 관점이나 실증주의적인 시각에서 제기된 것이다. 어떤 것을 기억하고 말한다는 것은 어차피 선택적이다. 이야기에 나오는 사건들은 경험의 한 측면만을 표기한 것이다. 그러므로 생애사는 사실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진실이지만 일종의 꾸민 이야기(true fiction)가 된다. 진실이지만 꾸민 이야기라는 것은 진리와 반대되는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거짓이라는 말도 아니다. 진실이지만 꾸민 이야기는 문화적, 사회적, 역사적인 여러 진리 가운데 한 부분만을 담고 있다. 따라서 여러 사람의 생애사는 개인의 경험의 주관성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경험, 역사, 시각에 있어서 하나의 진리가 아닌 다수의 진리를 보여준다(유철인, 1998).

<이 글은 1998년 연세대학교 간호대학의 「간호학 탐구」 제 7권 1호에 발표된 것이다. 현재의 질적 연구 윤리에서는 용어가 많이 변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연구대상자' 를 '연구참여자' 로 지칭하는 것 등이 그러하다. '분석' 이라는 용어도 사회과학 연구 방법의 용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유철인의 이후 저작과 연관하여 '생애사 분석' 대신에 '생애사 텍스트 쓰기' 정도로 고쳐 써도 무방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 보았다. 유철인 교수의 다음 글은 나의 생애사 공부와 학위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한 '마지막 한 방' 이었다>

면담 : 같은 구술자를 같은 면담자가 면담을 해도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구술자가 선택적으로 어떤 것을 기억해 내고 기억난 것 중에서도 어떤 것만을 선택하여 이야기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면담자의 질문에 답하는 대화의 과정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텍스트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를 제대로 반영할 수가 없었다. 구술된 이야기의 구조나 순서를 그대로 문자화 하여 텍스트가 되었을 때에는 구술된 이야기와 문자화된 텍스트의 서사구조(narrative structure)가 다르기 때문에 독자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증언 : 증언은 구술사의 원자료를 제공한 개인보다는 사건의 성격, 사건의 진행과정, 사건의 원인과 결과 등에 초점을 더 맞춘 것이다(Titon 1980 : 201). 이에 비해 한 개인의 지나온 삶을 자신의 말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한 기록인 생애사는 특정 사건이나 경험에 대한 증언을 종종 포함하지만 증언과는 달리 한 개인의 삶에 초점을 둔다(유철인, 2001).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구술된 경험을 생애사 연구의 핵심주체의 하나인 구술자의 주체성(subjectivity)이라는 관점에서 읽으면 어떠한 해석이 가능한지를 보여주고자 한다.

경험 : 경험은 주체성의 매우 중요한 부분을 이룬다. 경험이라는 것은 행동과 그에 따른 감정뿐만 아니라 행동과 감정에 대한 개인적인 성찰을 포함하는 개념(Bruner, 1986)이기 때문이다. 경험한 것을 기억해 낼 때, 또한 자기의 경험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 의미는 다시 만들어진다. 그러므로 경험은 경험한 사람이 이미 해석한 것인 동시에 경험을 이해하고자 하는 다른 사람(연구자)에서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바로 경험한 사람 자신이 해석한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이다(Macus and Fischer, 1986 : 26).

구술자료 : 구술자료는 사건과 경험에 대한 기억과 회상을 통해 재구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술자료에는 사실적 진실(Factual truth)과 서사적 진실(narrative truth)이 혼재되어 있다. 어떤 것을 기억하고 말한다는 것은 어차피 선택적이다. 구술자는 사건을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상태로, 그리고 감정을 부여한 상태로 이야기한다. 서사적 진실은 경험한 사람들의 기억과 이야기 속에 엄연히 살아있기 때문에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구술자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이야기하더라도 그 이야기는 거짓된 기록은 아니다(유철인, 2004 : 33).

VI. 문자로 표상되는 모든 것들은 문자를 쓰는 주체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언어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글이든 글을 쓰는 주체의 욕망의 발현, 존재의 드러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나는 글쓰기에 문학적이라거나 학문적인 경계가 있을 것이라는 가정을 믿지 않는 편이다. 글머리에 인용한 「개망초에게」는 이러한 측면에서 '생애사 쓰기' 라는 것이 어떤 존재를 드러내는 작업이라고 생각해 적어 본 것이다. 한 철 지천으로 피어 망초에 더해 하필 개망초라는 이름이 붙여진 흔하디흔한 꽃. 개망초에게도 이름을 붙이고 눈길을 주는 인간이 하물며 사람에게 이름을 붙이지 못하겠는가. 인간은 누구나 살아있는 동안 모든 행위에서 개별적이며 동시에 사회적(집단적)으로 존재한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존재감을 자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또한 존재를 드러냈다고 해서 뭐 특별한 일은 아닐 것이다. 어쨌든 생애사를 쓴다는 것은 잊혀졌거나 잊혀져가는, 그래서 필경 외로움에 빠져 있을 한 개인의 삶을 되돌아보는 것이다. 결국 고흔孤魂으로 가 닿게 되겠지만, 한 개인의 삶과 존재를 환하게 드러내주는 착한 행위라는 생각을 해

본다. / 글의 말미에 인용한 「나의 멘토Mentor」는 사실 연애와 실연에 관한 것이다. 떠난 연인이 말을 걸어 올 리 없으니 ‘님의 침묵’이 되는 것이다. 생애사 쓰기에서 ‘라포rapport’는 연애감정과 같은 것인지도 모른다. 개인의 취향에 불과하겠지만 나는 치열한 연애를 하며 써 내려 간 글들이 재미있다. 특히 실연失戀을 다루는 남녀상열지사男女相悅之詞를 좋아한다. 그러므로 생애사 쓰기를 연애하듯이 하고 싶은 것이 나의 로망이 되는 것이다. 치열한 연애는 한 존재가 한 존재를 완벽하게 덮어씌우기를 하는 것과 같다. 그러면서 연애라는 것은 반드시 생로병사生老病死를 겪는다. 실연을 당해 봐야만 그 실체를 알 수 있다는 것이다. 나도 그렇게 사랑이라는 감정이 실연의 과정을 통해 서로의 멘토가 되어 접속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와 같이 아니면 다르게, 생애사를 쓴다는 것은 연애를 하는 것과 같은 것일 수밖에 없을지 모른다. 연구자는 떠나가는 연인 앞에서 ‘아무 것도 아닌 존재’를 깨닫는 존재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것을 어떤 이들은 ‘존재에서 비존재로 날아오르는 것’이라고도 한다. 그렇게 무지와 어리석음에서 한 꺼풀 벗어나는 것이다. 이후에, 떠나갔으나 심장 깊이 새겨져 있는 연인은 아닐지라도, 대개 거기서 거기일 삶을 살아 온, 연인과의 같은 어떤 이와 라포라는 이름으로 접속되는 것이다. 그 누군가 침묵을 거두고 기억을 불러내어, 나에게 살아 온 이야기를 들려준다면 얼마나 행복하겠는가.